

平澤林氏府使公宗派家乘譜 刊行에 즈음하여!

祖上을 섬기고 일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근원(根源)된 도리(道理)라 하겠읍니다.

우리林씨는 祖上の 심원(深遠)하신 음덕(蔭德)과 숭고(崇高)하신 血統으로 유구(悠久)한 세월속에 찬연(燦然)한 歷史를 지니고 있습니다. 千餘年 前부터 문장(文章)과 명현(名賢) 그리고 석덕(碩德)이 代를 이어 배출(輩出)되었고 道德과 위업(偉業)이 방방곡곡에 사실(史實)과 전설(傳說)로 길이 빛나고 있으며 번성(繁盛)한 후예(後裔)들은 국내 大氏族의 성좌(星座)로 손꼽을 만큼 널리 웅거(雄據)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先祖님의 거룩하신 은덕(恩德)에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생각할때 崇祖애족(崇祖愛族)의 유연한 孝心을 우리들은 잠시라도 잊을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府使公宗派 여러분!

오늘날 西洋의 文明이 맹목적 도입과 物質文明의 發展으로 因하여 우리氏族고 유(固有)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이 크게 소외(疎外)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수 없읍니다. 그러나 近者에 와서는 尙崇배(尙上崇拜)의 정신

平澤村氏府使公派家拜誌

(精神) 과 사상 (思想) 이 우리들 生活의 根本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國民的 자각 (自覺) 과 運動이 일어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 門中の 美風良俗은 곧 나라의 美風良俗이요.

한 門中の 良俗發展은 곧 나라의 良俗發展과 조화 (調和) 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多幸히도 이때에 우리 宗派譜刊行하는 것은 우리血統 규합단결에 一大 표본 (標

本) 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모임에 있어서 長期間 불철주야 (不徹晝夜) 로 노고 (勞苦) 에 同參하

신 同福居住 平松 (桐柱) · 茂長居住 梧谷 (碩柱) 諸氏에게 뜨거운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一九八三年 十二月 二十日

府使公 (諱可棟) 十七代孫 東吉 謹序



平澤林氏府使公派家乘譜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彥修 子成味 子尙陽 子禧 子孝孫 子可棟

號桂軒壁上三

韓三重大匡太

尉贊成事門下

侍中同平章事

平城府院君

諡忠貞公諡法

危身奉上曰忠

大慮克就曰貞

公生于

宋恭帝德祐間麗

季有勳功入相

出將為當名臣

卒于

皇明洪武間享年

九十

配貞敬夫人金浦

公氏父門下評

理事永純沔川

司馬文科壁上

三韓三重匡婿

大夫門下侍中

同平章事三司

右使上護軍

諡法危身奉上

曰忠亂而不損

曰簡公以文章

知名當世

配貞敬夫人長興

任氏父小府尹

琦典署客令瑞

生孫

墓京畿長湍郡

長道面杜梅里

元金谷良坐有

表石

按東史洪武十

入我 朝折衝

將軍知訓鍊觀

事上將軍六月

二十六日卒

配淑夫人蔚珍張

氏忠清監司續

密山君朴僂外

孫四月七日卒

墓在木監洞先

塋側云而忠簡

公墓記註金川

郡之江陰縣木

監洞或云平澤

龍珠坊戊子得

忠簡公墓碣於

長湍金谷而上

將軍墓所則難

以的知日後子

贈通訓大夫司僕

寺正行司醞署

直長甲辰十月

二十九日卒

配淑人羅州羅氏

父道岡監務設

典農寺正公彥

孫工曹典書進

曾孫知瑞原郡

事鄭淵外孫癸

卯正月二十六

日卒

墓羅州郡羅州

邑榮山浦上松

月里舊興龍洞

右麓前後兆

公自京畿松峴

贅居羅州鄉人

初名行直生于

永樂十八年庚子

世宗朝成均進士

四歲母夫人羅

氏下世明年直

長公繼卒外王

考道康公育之

子孫因居羅州

九月二十一日

卒

配宜人仁川蔡氏

父主簿居安十

月十五日卒

墓失傳有壇享

碑

子從直 子百根

贈通政大夫兵曹 通訓大夫行振

見8板